

한국사회의 문화적 변동의 신학적 의의

이상훈(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신학)

- 序: 문제의 공유를 위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의 제 영역에 나타나는 다양한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이같은 한국 사회의 심층성,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현대 우리 사회의 여러 단면들에서 노출되고 있는 갈등 구조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개선의 방향을 논함에 있어서 특별히 한국사회에서 근대화의 일련의 과정들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아울러 대안으로서의 방향 제시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식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련의 반성적 사유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세계사적 차원에서 보편적 인류 문화가 경험하였던, 소위 ‘근대정신’의 단면을 살펴보고 아울러 한국 사회에 전래되어왔던 이같은 서양의 근대사조를 한국 사회는 어떠한 입장에서 수용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로서 한국의 사회는 어떠한 융해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를 느끼게 된다. 아울러 현실의 진단을 근거로 이에 대한 신학적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1. 근대이후 사회의 전개

‘근대’ 혹은 ‘현대’를 마감하면서 소위 ‘현대이후(Post Modern)’의 제반 양상을 가늠하는 논쟁에 있어서 일반 철학이나 현상학에서는 주로 ‘기존 질서의 해체’ ‘보편가치로부터 특정가치로’ ‘일반적 관심사로부터 개별적관심’으로의 이행을 그것의 중요한 패턴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양식이 연극에서는 부조리극의 시도로서, 음악에서는 소위 ‘우연성의 음악’으로, 그리고 회화나 미술에서는 전위, 내지는 해체예술 형태로서 우리에게 소개된 바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현상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다니엘 벨은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성을 전통적인 서구의 가치체계가 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유대 기독교 전통을 밀바닥에 깔고 있는 서구사회는 사회구조의 각기 다른 부문인 경제, 정치, 문화 등의 부문을 지배하는 통합적인 윤리가 엄연히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적 모토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흔히 모더니즘으로 표현되는 산업사회로 옮겨지게 되자 사회, 경제부문은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관료제가 지배하고, 정치부문에서는 평등권을 위해서 사회 세력들이 다투게 되고, 문화 부문에서는 개인들이 자아의 확대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목표가 된 사회 분위기를 낳게 되었다. 즉 이제 문화와 예술에서 흥분과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으로서의 모더니즘이 기존의 종교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¹⁾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소위 현대-이후에 와서는 극적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른다. 즉 사람들은 자아실현이라는 명분하에 지금까지 금기로 여겨져 왔던 전통과 제도를 파괴하고 본능적이고 쾌락적인 활동들을 봇물처럼 쏟아 붓기 시작하였다. 한 번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자 학문과 문화의 각 부문에서 이같은 현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되었다.

1) Daniel Bell,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NY: Basic Books, 1977)

먼저 철학에서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는 실존주의의 모토가 요즈음에는 한물 간 것처럼 취급되기는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을 표방하는 일련의 사태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선재(先在)하는 어떠한 형태의 가치규범이나 본질적 존재를 부인하고 행위하며 결단하는 주체로서의 실존을 우선시하던 실존주의 철학의 연장선에 머물지 않을 수 없다. 본질을 정의하는 어떠한 형태의 시도도 ‘도그마’로 간주하여 이를 거부하는 소위 니체적 표현대로 ‘초인(超人)’이 되기를 갈망하는 실존주의자들의 모토에 따르면 모든 속박으로부터 훌훌 벗어나는 절대적 자유만이 유일하게 ‘본질’의 항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신학에서는 하이데거의 실존철학적 방법론을 신학에 적용하고 있는 볼트만의 경우 포스트모던적 경향을 열어놓은 중요한 인물로 인식된다. 이를테면 그는 ‘존재와 신앙’에서 바울은 우선적으로 인간을 의식적인 주체로서 보지 않았다. ‘인간에게 인격을 갖게 하는 인간의 자발성과 행함의 성향은 인간 주체자의 노력이 전혀 아니다’라고 규정하면서 통전적이고 독립적인 인격 개념을 부인하고 상황과 실존 속에서 열린 가능성의 존재로서 인간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사회와 경제부분의 경우 이러한 ‘현대이후’의 다양한 현상을 토플러는 ‘제 3의 물결’ 개념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류는 적어도 1만년 세월에 걸쳐 이루어 왔던 기존 판도를 새롭게 짜는 국면에 처해있다고 예견하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 그의 ‘시장(Market)이론’은 흥미롭다. 그에 따르면 인류는 지난 1만년 동안 세계를 거미줄처럼 엮는 기구, 즉 시장을 구축했다. 그러던 것이 소위 ‘산업화’로 일컬어지는 생산성의 혁명을 업고 등장한 ‘제2의 물결’ 시대에 접어들어 약 300년 동안 유통기구는 눈부시게 발전되고 정비되었다. 제 2의 물결 시대의 문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세계를 시장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시장문화가 지배적인 문화가 되어 세계를 상대로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다시금 ‘제3의 물결’의 시대로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예견한다. 그는 제 2의 파도가 시장 확대의 시대라고 한다면, 제 3의 물결 문명은 탈시장(Transmarket)문명이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즉 시장이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의 ‘탈시장’이 아니라 시장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과제로 전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탈시장이라는 것이다.²⁾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 전자, 공학, 정보, 생물공학 등에 있어서 융통성 있는 생산과 특정 분야를 목표로 한 시장 그리고 파트 타임제 노동의 확산, 미디어의 탈대중화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른바 정보화 및 세계화의 경향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2. 오늘의 한국, 그 자화상

오늘의 한국사회는 서구 중심의 근대와 근대이후의 제 경험이 한꺼번에 밀려와 다양한 문제를 노출하는 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 국가의 국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단지 외형상의 수출물량이나 국민소득의 산술적 비교로써 완결될 수 없다. 개개 국민들의 의식수준, 문화의식, 그리고 이러한 유, 무형의 모든 자산들이 종합, 평가되어야 비로소 올바른 국력의 잣대를 우리는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좋은 전통과 유산을 오늘에 계승, 발전시키고 보다 바람직한 내일을 창조하기 위한 장, 단기적인 구체적 계획 속에서만 한 국가의 미래는 보장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가 아닌 ‘나’, ‘함께’가 아닌 ‘홀로’의 의식이 점점 사회 속에 팽배해 나가고 있고 소위 ‘집단이기주의’ 내지는 ‘무소신’ ‘보신(補身)주의’ 등이 팽배한 실정이 아닌가?

환경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한 국가가 얼마나 다양한 생물을 보유하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국가의 자산이 된다. 현재 한국에는 2만 2천여종의 동식물이 사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동물 1

²⁾ Toffler, A., *The Third Wave* (NY: William Morrow & company, 1980)

만 4천여종, 식물 7천 5백여종/94.4.7 시사저널) 그러나 최근 무분별한 국토 개발로 삼림이 파괴되고, 연안의 청정 구역이 오염되면서 막대한 생물과, 해조류가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등 심각한 현상을 노출하고 있다. 조류의 생태계에서 단 1종의 새가 절종되면 곤충은 90종 이상, 식물은 35종, 어류는 2-3종 가량이 함께 멸종되어 버린다고 한다. 이러한 심각한 생명과피 현상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마땅히 생물자원에 대한 현상과약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참 걱정스럽다. 벼짓같은 고등균류, 지의류 등 이끼 식물의 경우 소위 전문가로 꼽는 사람은 2-3명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웃나라 일본과의 비교에서도 현격한 수준 차이를 나타내는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는 하나님의 위탁명령은 분명 환경의 관리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주위의 생물들이 우리의 무지와 이기심으로 하나씩 파괴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이 땅에서 바로 이러한 생물의 한 일원으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미래가 보인다는 점에 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양으로 생명을 얻게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함(요 10:10)’속에서 볼 수 있는 ‘풍성한 생명’에의 축복이 파괴와 살상을 일삼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심각히 도전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실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리춘산교수는 ‘한국의 근(현)대화는 서양과 동양 문화를 한국의 문화 전통과 역사 환경에 뒤섞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을 겪는 동안 한국은 근(현)대화의 도전에 직면하여 국가적으로 끊임없이 보다 강해지려는 시도를 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조망을 승화시켜 현대적 가치의 조망의 틀을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역사적 선택을 사회적 실천에 적용하는 일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같은 실천의 결과가 일견 ‘부국강병’의 국가적 덕목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식민지, 전쟁, 분단, 돌진형 근대화로 불리우는 목적제일주의의 사회적 모토등 일련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간과 인간의 만남’(마틴 부버의 ‘나’와 ‘너’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상호 이해와 존경을 무너뜨리는 역기능을 노출하기도 하였다. 이제 이같은 오늘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이다. 우리는 그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 結: 문화변동과 신학적 제언

이상으로 한국사회의 문화적 변동을 인식하면서 그것이 갖는 신학적 의의를 제고하고, 아울러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 사회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경험한 지난 세기의 과오를 극복하고 발전적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방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그것에 대한 답으로는 1) 먼저 서구의 근대정신의 실험 중 미완으로 남겨둔 ‘자유’와 ‘평등’의 어느 일방적 가치의 추구가 아닌 ‘자유’와 ‘평등’의 동시적 추구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작금 논의되고 있는 소위 ‘포스트모던’적 사유의 경향은 이상의 역사적, 문화적 반성을 통해 제기 되어온 반성적 사유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유 속의 평등’, 또는 ‘평등 속의 자유’의 이념의 실천적 가능성을 진지하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대안으로서는 2)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가려 인류 역사의 전개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박애’ 전통의 부활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박애’를 실천하는 방법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장(場, Locus)에 대한 모색은 종교의 역할과 함께 모든 책임 있는 이들의 진지한 성찰적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으로서 우리의 과제를 맺고자 한다.

첫째: 현대사회를 위한 새로운 목회와 신학적 대안은 기술사회의 도래로 야기될 각종 사회문제에

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과학의 발달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마음이 부풀어있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신학은 그 한계성과 범위를 논의하면서 과학-종교의 대립이 아닌, 과학-종교의 화해를 지향하는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하이테크사회는 이미 하이테크사회로의 전환을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가올 시대를 위한 신학적 지향점은 인간소외의 현상이 아닌 창조의 보존과 그 발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과학이 가져다주는 이기(利己)는 근대 합리주의 전통에서 이미 경험했던 개인주의의 극대화 로 인한 문명의 파괴가 아닌 성서적-교회사적 전통의 맥락 속에서 인류에게 공동으로 경험되었던 역사적 유산의 풍성한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넷째: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황폐화로 특징 지워지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새로운 신학은 어떻게 성서적-복음적 공동체적 가치를 심어줄 것인가를 제시하고 아울러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행동양식의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